

늘어나는 선진국의 다국적 공동연구

G7과 한국 등 7개국 81~94년간 2배 늘어

비율은 1981~199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그동안 다국적 공동저자의 비율은 여러 경우에서 2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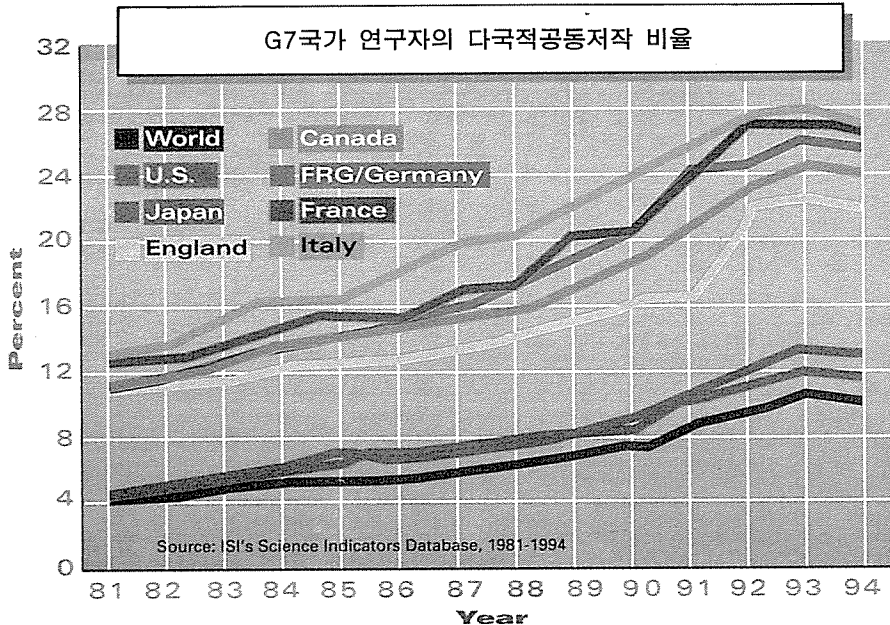
두 합쳐 자료의 1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사이언스 위치」지는 먼저 각국의 매년 발표된 논문의 양을 평가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81년에 ISI가 색인한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는 28만5천5백98건이었으며 이중에서 1만3천8백66건의 논문은 적어도 미국 외의 주소를 가진 저자가 1명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1981년 미국 연구논문의 4.86%는 최소한 다른 나라의 저자와 공동으로 작성했다.

G7국가중에서도 프랑스의 경우 1994년 최소한 1명의 프랑스 외의 주소를 가진 저자와 함께 작성한 논문이 26.65%에 이르러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보여 주었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는 26.58% 그리고 독일은 25.52%였다. 그러나 미국은 1994년의 경우 G7국가중에서 최저수준인 11.68%였다.

G7국가들은 1980년대 전반을 통해 국제공동저자의 논문비율이 꾸준히 상승했으나 최근 몇해째 평행선을 긋고 있다.



오늘날 국제적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과학정보연구소(ISI)가 발행하는 「사이언스 위치」(1996년 1/2월호)에서 밝혀졌다.

이 전문지는 논문의 다국적 공동저자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이른바

G7그룹 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멕시코, 중국, 호주 등 7개국을 선정하여 지난 14년간(1981~1994년)에 걸쳐 과학, 수학, 공학 및 인문학분야에서 발표된 저널의 문헌을 조사연구했다.

세계 전체로 볼 때 G7그룹으로 알려진 선진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의 경우 다른 나라의 저자들과 함께 작성한 논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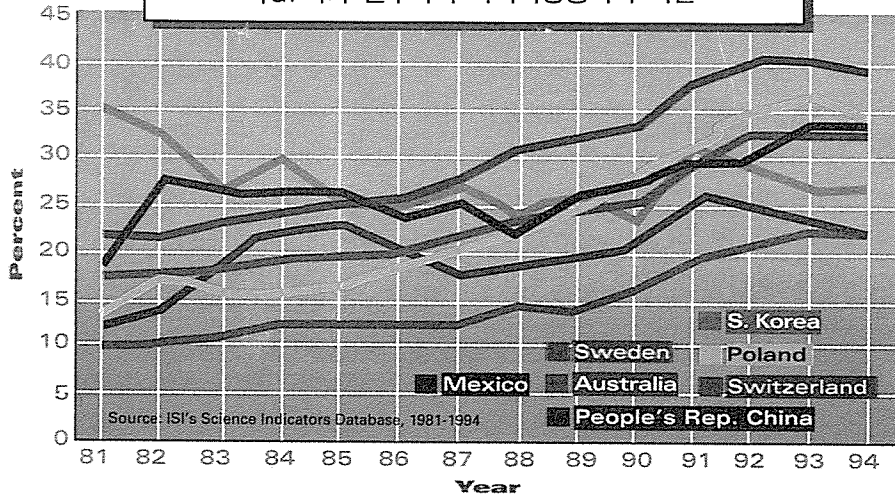
상 늘어났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이 14개국의 다국적 공동저자의 수준은 평행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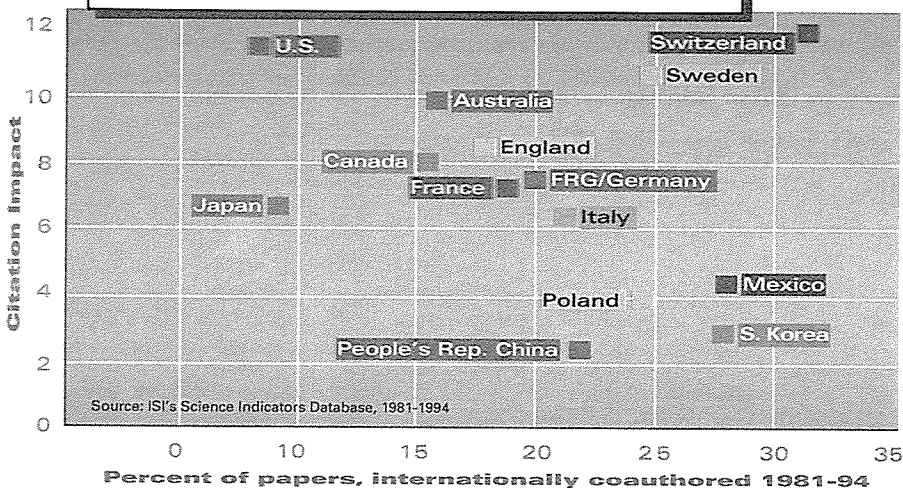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사이언스 위치」지는 1981~1994년간 발표된 1천만 건 이상의 논문 등을 조사했는데 예술과 인문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여 조사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모

비G7국가 연구자의 다국적공동저작 비율



14개국가의 다국적공동저작비율 대 인용빈도율



1992년과 1994년을 대비할 때 일부국가에서는 국제공동저자의 논문수준이 실제로 줄어들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는 1992년에는 국제공동저자의 논문비율이 27.08%였으나

1994년에는 26.65%로 떨어졌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1994년에는 1992년의 27.27%에서 26.58%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도 1993년의 12.03%에서 1994년에는

11.68%로 약간 떨어졌다. 한편 G7 외의 다른 7개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예컨대 스위스는 1994년 외국저자와의 협력비율이 7개국중 최고인 40% 이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폴란드의 35.15%였다.

스웨덴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외국과의 공동연구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한편 멕시코의 비율은 변동이 많기는 했으나 이 두 나라는 1994년 최소한 1명의 외국인 공동저자를 가진 논문의 비율이 똑같은 33%에 이르렀다.

그러나 호주와 중국은 국제협력연구에서 7개국중 최저수준인 22%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4년에 이르러 더 이상의 증가를 멈추었다.

「사이언스 워치」지는 1981~1994년간 각국에서 발표된 모든 논문의 건당 인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경우 전분야에 걸쳐 평균 11.42회였으나 최소한 외국인 1명의 저자이름을 가진 미국논문의 인용빈도는 8.16회였다.

그러나 폴란드, 멕시코, 한국,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 저자와 공동으로 저작한 논문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반면 건당 인용빈도는 비교적 낮았다. ④7